



“아저씨, 기자장어요”... 숨기고 싶지만, 꺼내야만 하는 이야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MBN 현장연결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철야 근무를 앞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오후 시간,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 “아, 내가 가야 하는구나.”

때는 2017년 12월21일.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특보가 나오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향해 끝 모르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구조 소식보다는 실종자 소식만 전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서둘러 회사로 향했고 차를 탔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이동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웃고 마을에 다다랐는데, 동네는

을씨년스러웠다. 불 냄새가 코끝을 에워싸고 매캐한 연기가 온 동네를 휘감았다. 그렇게 마주한 스포츠센터 건물은 겹겹이 그을렸고 유리창이 다 깨져있어 차츰하기 그지 없었다. 내가 도착한 시간에는 다행히 이미 불은 꺼진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일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내부는 진입할 수 없었고, 촬영 기자는 열심히 외경을 찍고 있었다. 그사이 나는 취재 포인트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은 장례식장이었고, 제천서울병원으로 향했다.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미 사망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사람들. 환자들을 싣고 나르는 소방대원들. 그리고 취재를 위해 말을 건네고 있는 기자들. 백팩에 핸드폰을 들고, 슬퍼하는 기색 없는 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MBN 중계 화면

람들은 모조리 기자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그 환경에 던져진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연 취재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까칠했다. 이미 많은 기자가 다녀간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흔쾌히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할까. 나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너희는 너희들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건가.

시간을 돌이켜 회사에 입사했던 2014년이 떠올랐다. 수습 시절 사회부에서 MT를 가기로 했는데, 워낙 고된 시기에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교양시 인근에서 내렸는데, 일이 터졌다. 지금 당장 판교로 택시를 타고 가란다. 택시

비로 5만원이 나오는 거리.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였다. 기자로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던 시절, 취재의 1도 모르는 시절, 수습인 우리는 모두 사연 취재에 투입됐다. 2~3명씩 나뉘어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 취재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이걸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다. 호상이어도 이야기를 해 줄까 말까 한 판인데, 끔찍한 사고였다. 거기다 이미 장례식장에는 기자들이 쓸고 가다시피 했고, 유족들은 극도로 예민했다. 고성음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기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사표를 결심했다.

입사하기 전에 세월호 사고도 있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를 겪지 못한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

기도 했다. 일주일만 다녀오라더니 한 달을 갇힌 선배의 이야기, 속옷도 챙겨가지 않아서 빨아 입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힘든 건 유족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다. 취재를 나간 기자가 유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취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건 꽤 많은 건가? 백번 양보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순 있다고 해도,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매체 등등 못해도 수십, 수백 곳이 취재하고 있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아까 인터뷰 다 했는데, 그건 거기랑 한 거고 우리랑 한 거는 아니니까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제천으로 돌아왔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던 중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네 명의 소녀들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 입구에는 실종자, 구조자, 사망자로 나뉘어 이름이 적혀있었다. 소녀들은 친구 이름을 찾는 것 같았는데, 적혀있지 않은 듯했다. 혹시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래도 소통의 창구가 있기는 하니까.

“혹시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자 돌아온 답은 “아저씨... 기자잖아요.”였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왜 저런 반응일까.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득 담긴 말투 속에는, 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을 취재대상으로 인식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나도 역시 수첩 들고, 감정 없이 피해자들에게 뭐라도 하나 듣겠다는 ‘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소녀들에게는 한번 내가 수소문해보겠다고 하고 이름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이어서 다른 희생자들이 나온 제천 제일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피해자들의 장례식장도 차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와 딸, 그리고 손녀딸이 목욕을 위해 스포츠 센터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머니들은 참 안됐으면서 나에게 이야기해줬고, 내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 친구들이 찾던 그 친구였다. 제천서울병원을 찾아 다시 그 친구들을 찾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

다. 솔직히는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 친구들은 같은 질문을, 나와 같은 기자들에게서 얼마나 들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기는 한 걸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다음이었다. 서울로 올라오고서 조간을 살펴보니, 가장 크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세 모녀 사연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가장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던 이야기다. 또 그런 죽음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수사 합격 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고서 시신으로 발견된 딸. 엄마가 다니는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알아보니, 가장 먼저 발견된 엄마의 시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들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생각이 들

제천 화재 발화 CCTV 화면



제천 화재 병원 앞

었다. 조간에 나온 그 기사도, 나와 같은 취재 과정을 거친 걸까. 그렇게 누군가는 속상해할 수 있고,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저런 기사들이 나온 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취재는 나에게서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부끄럽지만 꺼내야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

세월호 이후 기자들은 재난보도준칙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외에도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저런 재난현장에서 단독이나 속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누구한테 한마디 더 들었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건가. 오히려 달라지는 건 그런 언론을 접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불신시대를 만든 건 아닐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레기’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다. ‘기레기’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더는 그 선 안 된다. 적어도 재난 보도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연 취재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은 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